

TwoWings 1500 vision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예일교회

담임목사 **강승신**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56

전화 032.345.8031-2

팩스 032.345.8033

홈페이지 www.ylch.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일교회



큰날개 주일예배

	전통예배 오전 9:00	축제예배 오전 11:00	젊은예배 오후 1:30
찬양과 경배	예배로의 부름 찬양 10장	예배로의 부름 찬양 찬양하라 내 영혼아	노피어 찬양단 찬양 주 임재 안에서
고백과 헌신	교육문 17. 시편 29편 신앙고백 찬송 171장 기도 백현옥 집사	기도 이은숙 권사 성도의 교제	기도 유한나 자매 광고 및 환영
말씀과 결단	<p>마가복음 9장 23~24절, 마태복음 4장 19~20절 (신약 68, 5)</p> <p>공정의 영성 설교 담임목사</p>		
축복과 파송	봉헌 502장 축도 담임목사	봉헌 날 향한 계획 축도 담임목사	봉헌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축도 담임목사 나눔과 교제

공동체예배 15:00	4월 예배위원	
가정 예배	[다음주 기도] 전통예배 임영미 집사 축제예배 이성근 장로 젊은예배 박해인 자매	[봉헌] 전통예배 김영숙 이해경 축제예배 박용수 임경진 김화심 박현숙 정세희 젊은예배 김솔 임소은
수요기도회 19:30	5월 봉헌위원	
가정 예배	[전통예배] 김정화 한미라	[축제예배] 서동협 정오영 김해숙 서덕이 정영아



오늘의 말씀

공정의 영성

[마가복음 9장 23~24절, 마태복음 4장 19~20절]

첫째, 성도의 능력은 ()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믿음이 일으키는 공정의 영성은 ()이라는 () 위
에 세워져야 합니다.



작은날개 목장나눔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1-6]

W

WELCOME

환 영

..... ICE BREAK를 해봅시다.

W

WORSHIP

경 배

.....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W

WORD

말 씀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나만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 먹고 싶은 음식을 원 없이 먹는다
- 땀에 흠뻑 젖을 때까지 운동을 한다
-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떠다
- 여행을 떠난다
- 아주 슬프거나 웃기는 영화를 본다
- 죽은 듯이 잔다
- 취미에 집중한다
- 심호흡 등 묵상을 한다
- 기타

Q

QUESTIONS

질문

1. 하나님은 시인의 무엇이 되십니까?(1절) 하나님은 시인을 어디로 이끄십니까?(2절) 어떤 일을 하십니까?(3절)
2. 시인이 위험한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4절) 주께서 시인에게 베푸신 것은 무엇입니까?(5절) 시인이 다짐한 것은 무엇입니까?(6절)
3. 하나님은 지금 내게 어떤 분입니까? 보기에서 골라보고 나눕시다.
 -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1절)
 -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2절)
 -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3절)
 -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를 써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분(4절)
 -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바르시며 넘치도록 잔을 채워주시는 분(5절)
4.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기 위해서 한 주 동안 해야 할 일을 정해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W

WITNESS

증거

이번주 행복모임의 진행현황과 베스트와의 관계맺기에 대해서로 나누어 봅시다.

W

WORK & PRAYER

기도

돌봄이 필요한 목장가족이 있는지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1) 문제를 맡기며 기도
- 2) 베스트와 행복모임을 위해 기도
- 3) 치유와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
- 4) 축복기도



간증나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 청년B-2목장 이혜수 간사 -

안녕하세요. 청년 B2목장 이혜수 간사입니다.

지난 코로나사태로 인한 약 2달간의 방학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월 말 이번 새봄 사역은 모든 성도들의 기대와 열정으로 행복모임 80개/ 양육반 7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고 사역선포 한주 전 고심 끝에 사역을 2주 연기하게 됐습니다.

부풀어 있던 기대감과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2월달부터 매일 전도팀과 함께 행복모임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소사역 모바일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마저 매일 전도가 중단되고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 속에서 행복모임을 어떻게 해야할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베스트들이 만남을 꺼려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때 문득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사망권세도 이긴 복음의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상과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영혼들의 구원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두려움을 안고 행복모임을 하러 갔습니다. 그날 행복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로해주셨습니다. 걱정했던것과 달리 베스트들이 행복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베스트들의 반응 하나하나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로 선포되는 복음은 제 귀에 들어와 확신과 믿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매주 꾸준히 복음을 전하

고 관계를 맺다보니 이제는 삶의 깊은 문제까지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베스트의 아내가 출산을 하였습니다.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베스트에게 전화가 와서 너무 고맙다며 다음번에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베스트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베스트를 통해 가정 전체가 복음으로 변화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 받길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영적으로 죽어서 아무런 반응도 없었던 영혼들이 기도응답을 체험하며 복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행복모임을 통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때까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 저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시기에 고등학교 친구와 일대일 행복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역이 연기되었으나 제 베스트는 영적으로 매우 갈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의 동의를 구하고 일대일 행복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첫 주 기타를 가지고 베스트의 카페에서 행복모임을 했습니다. 베스트는 낙심자로 하나님을 떠났던 죄책감과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집 앞에 있는 두날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나태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 행복모임에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예배에 자리를 지키는 것이 힘들어 영적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영향은 점점 커져가며 주일예배마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행복모임만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려하

는데 우연히 근처에 사는 우리교회 청년과 몇몇 청년들이 부천에서 차를 끌고 인천까지 와서 함께 행복모임에 참여해주었습니다. 일대일 행복모임이 순간 풍성하게 불어나며 함께 기도해주는 영적인 동역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매주 기도응답을 체험하며 좋은 관계를 통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행복모임이 너무 좋다며 주변 친구들에게 행복모임을 소개하며 초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을 받고 더욱 성장하여 자신도 행복모임 리더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교회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베스트가 복음으로 낙심을 완전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저 그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긴 방학동안 많은 영적 방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태만해지고 여러 문제로 인해 두려웠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대로 잃은 양들을 찾고 일꾼을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황과 약함은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해짐을 느낍니다. 친구를 만나고 티비를 켜면 힘들고 세상의 어려운 이야기들 투성입니다. 그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없음을 확신합니다.

이제 새봄 사역의 시작을 앞두고 베스

트들과 관계맺기를 하며 전 직장의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선교에서 있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베스트가 자신에게 들려줬던 백지전도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2년전에 들었던 백지전도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베스트의 집이 너무 멀어 행복모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었습니다. 우연히 지도를 보는데 제 장기 베스트의 학교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장기 베스트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서 행복모임이 열리기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긴 방학기간 나태했고 무너졌던 저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세상은 점점 악해지겠지만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복음으로 구원 받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심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지도해주시고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게 본을 보여주신 목사님께서 저의 영적 아버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옆에서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는 청년공동체와 예일교회 믿음의 선배되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망했던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올려드립니다.



부활 신앙의 공동체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지켜보는 중에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 1:4-5)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로 가시는 것이요, 둘째는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함이고, 셋째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들의 개인적인 신앙사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과 연결되고 각인이 십자가 밑에서 용서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의 용서요 부활은 내 부활이요 내 승리라는 확신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부활의 복음이 증거 되고 세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을 체험한 신앙인들의 공동체

초대교회는 부활의 사실을 보고 만진 사람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부활 사건으로 확증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물질을 통용했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팔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창조 이래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향으로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공산주의 정치체제까지 나타나 온 세상을 새빨강게 만들었지만 100년도 안되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는 개인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신앙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선하는 삶.

필리핀의 종교장관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필리핀의 복음화는 선교사들이 모두 철수하면 이뤄진다.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교현장에서 예수 그

리스도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보다 인간의 질서, 즉 욕심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는 영국선교사들에게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는 인도에 남겨주고 당신들이 가지고 온 기독교는 가지고 가라.”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리를 무조건 비판만 하지 말고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질서에 우선하지 않고 세상 나라의 질서를 먼저 내세우면 복음의 우월성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직원보다 사장이 더 높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대우 받습니다. 무능한 사람보다 유능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면 가난해도, 병약해도, 무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나눔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변화된 교회의 특징은 독식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

입니다. 자기 것을 남과 나누고 한마음이 되어 성전에 모였고 음식을 나눠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 나와 영생 얻는 길을 물었습니다. 네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고 했더니 나눔이 안 되어 슬픈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여리고 성의 삭개오는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다고 했더니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시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초대 교회의 승리는 나눔에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주 도고기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

1.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 흔들림 없는 비전과 영력과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끄시고, 봄사역을 준비하게 하소서.

- 목사님에게 영적 담대함과 민감함을 허락하시어 언제나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소서.

2. 봄 사역을 위해서

- 봄사역이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5월 첫주에 모든 사역들이 힘있게 시작되게 하소서.

3.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 인도에서 코로나로 인해 한국인 비자를 전부 무효화 처리를 하게되었고, 다시 해외를 나가면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선교사들이 관광비자인 상황으로 비자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자 신청에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발급되도록 하소서.

성도를 위한 기도

1. 김지연 자매

- 학교가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확정되면서 학교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행복모임을 수정하게 되었고, 수원에 있는 고향 친구와 학교 연구실에 있는 친구와 각각 행복모임을 하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여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소서.

- 학교 공부로 인해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큐티, 말씀 읽기,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게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일을 최우선의가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 윤준이 집사

- 몇달전부터 친정아빠께서 구토와 소화불량으로 약물복용에도 호전되지 않아 위내시경 검사를 하였습니다. 의사는 위염에 연세도 있어서 입원해서 조직검사를 하자고 권유하는데 아빠가 고민하고 계십니다. 구토와 위염이 빨리 치유되어 소화능력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주의 감사

-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봄사역 승리케 하소서.

-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 능력과 그 기쁨, 사랑을 깊이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법사에 감사합니다.

-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영혼을 더욱 빛나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로 깊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 주님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 큐티 나눔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이번주 소식

1.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난 당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위해, 열방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주일(5/3)에는 봉사역 선포식이 진행됩니다. 온 성도가 함께 사역을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봄 행복모임은 이번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행복모임의 현장마다 복음의 절대 능력이 선포되고, 베스트들의 마음이 열려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주일에는 베스트 봉헌식이 진행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베스트를 작성하여 기록하신 후 다음주일 예배 시간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5. 이번주 토요일(5/2)에는 회복캠프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양육반과 제자학교 개강캠프입니다. 훈련생들은 7시 50분까지 늦지 않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리더반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2층 교육관에서 진행됩니다. 목자, 인턴, 행복모임 리더, 훈련생들은 필수 참석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0 여름 두달개 필리핀 아웃리치가 7월 20일(월)부터 25일(토)까지 진행이 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주 목요일(4/30)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유한나 팀장)
8. 5, 6월 셀라이프를 신청하셨던 분들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봉사

[주방봉사]
주방사역관리 담당 : 정일숙, 황귀순 권사

[청소]
본당 : 여성C-1목장(강애진 목자)
준2층,계단 : 여성D-1목장(양나윤 목자)
2층 : 여성B-2목장(박현숙 목자)
3층 : 여성A-1목장(서덕이 목자)
비전홀, 멀티룸, 화장실 : 청년공동체

새가족 섬김이

유성비 형제 (섬김이 : 사공세진 형제)
조광래 형제 (섬김이 : 한상익 형제)
박순례 성도 (섬김이 : 장미경 집사)

... 유로교회는 ...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세계비전을 품고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날개는 전체가 모여 감동적인 축제로 드리는 대그룹의 축제예배이며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으로 모여 삶을 나누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목장모임입니다.

이 땅에 어둠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는 동안 그들을 찾아 쉬지 않고 섬기고
복음전하며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앞장서며 열정으로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예 배 시 간

전 통 예 배	주일 오전 9시
축 제 예 배	주일 오전 11시
젊 은 예 배	주일 오후 1시 30분
공 동 체 예 배	주일 오후 3시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9시 30분
유 아 부	주일 오전 11시
유 초 등 부	주일 오전 9시
청 소 년 부	주일 오전 9시
작 은 날 개 모 임	목장별 정한 시간

섬 기 는 분 들

담임목사 강승신	장 로 이성근 이승길
전 도 사 장 효진 권요섭	
원로목사 강경원	원로장로 최기준

온라인으로 예일교회를 만나는 방법

스마트폰 QR코드 어플을 사용하세요.

홈페이지 www.ylch.org

모바일홈 m.ylch.org

페이스북 Yeil0691 Church

KT올레TV CH888, 예일교회 검색

온라인 봉헌 농협 351-0446-9239-73(예일교회)



마을버스

51번, 51-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시내버스

5번, 12번, 20번, 5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75번 (역곡 남부역 하차)

시외버스

83번, 88번 (역곡 남부, 괴안동 입구)